

12대 총여학생회 선거 평가서

1. 12대 총여학생회 선거의 목표는 무엇이었나?

- 자주적 여학생운동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자주적 여학생운동의 내용을 합의, 확산시키자.
- 조직대중을 규정성 있게 높여내자.
- 소모임, 단위 여극 및 체계를 세워낼 수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 학우들 속에 살아 숨쉬며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살아가는 간부가 되어야 한다. (대중관의 혁신)

2. 현재 민족효원 학우들의 의식지형을 잘 알아야 합니다.

1) 자주적 총여학생회에 대한 학우들의 의식지형

① 학우들이 생각하는 총여학생회의 필요성

여학우들이 생각하는 총여학생회의 필요성은 여학우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곳, 학내와 사회의 여성차별적 요소들에 대해 조직된 힘으로 바뀌어나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총여학생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는 학우들도 있었고, 그다지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② 학우들이 얘기하는 총여학생회의 과제

학우들이 가장 원하는 총여학생회는 가까이 있는,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하고 바뀌어나가는 총여학생회입니다. 여학우들 생활 속에 있는 여성문제에서부터 학내 의식을 바뀌어나가며 학우들과 함께 하는 총여학생회를 만들 과제가 도출됩니다.

또한 여학우들이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내는 곳, 그리고 총여 사업을 잘 알리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③ 그 외 전반적으로 총여학생회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점입니다.

자주적 총여학생회가 총학생회에 다소 복속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다지 절실하게 필요하게 생각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④ 결론

현재 여학우들이 생각하는 총여학생회는 자신의 삶과 별로 관련이 없는 얘기를 하거나 정확히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없는 곳으로 인식되어 전반적으로 총여학생회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대의체계가 없었고 정례화된 사업이 부재했던 데 기인합니다.

여학우들이 총여학생회 사업과 투쟁을 학우들이 느낄 수 있도록 꾸준히 진행된 사업이 없었으며, 총여학생회 기층조직이 무너진 이후 여학우들이 총여학생회를 자신의 가까이에서 느낄 수 없었습니다.

둘째, 총여학생회의 사업방법과 작풍이 학우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 데 기인합니다.

총여학생회의 기층조직이 무너진 이후 총여학생회는 늘 학우들 속에 있는 모습이 아닌, 동떨어진, 가끔씩 선전물에서나 나타나는 식으로 사업해 왔습니다. 그 때문에 실제 학우들은 총여학생회 사업이 자신이 사업이 결코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셋째, 자주적 총여학생회의 고유한 내용으로 학우들을 만나오지 못한 데 기인합니다.

여학우들을 항상 여학생운동의 내용으로 만나오지 못하면서 학우들이 총여학생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한 규정을 내리지 못하고 총여학생회가 얘기하는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2) 자주적 여학생운동에 대한 학우들의 의식지형 (대부분의 내용이 「자주적 총여학생회에 대한 학우들의 의식지형」에서 얘기되었으므로 통일의 문제를 중심으로 서술)

① 여학우들이 생각하는 통일과 여성의 삶과의 관계

첫째, 여학우들은 통일에 있어 그다지 절박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되면 좋다’는 정도의 인식으로 자신의 삶과 별로 연관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총여학생회에서 통일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학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통일운동을 여성운동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여학우들은 학내의 여성들의 투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학우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학내 성폭력과 학내 성폭력 규제 학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하며, 그 외 여성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한번쯤 들은 경우이거나 아예 듣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③ 결론

여학우들이 자주적 여학생운동의 내용에 대해서 거의 알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학우들은 여성문제를 느껴도 그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거나 느껴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냉소적인 면과 무관심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덧붙여 서구의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마녀들처럼 여학생운동이라는 것은 가부장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④ 이렇게 생각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자주적 총여학생회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지형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나 자주적 총여학생회의 고유한 내용으로 항상 학우들을 만나오지 못하면서 학우들이 총여학생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한 규정을 내리지 못하고 총여학생회가 얘기하는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3) 우리의 과제

① 대의체계를 건설해야 합니다. - 민족효원 여학생 대표자 회의 건설에 목숨걸자!

여학우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은 대의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민족효원 여학생 대표자 회의를 건설하고 그 체계가 여학우들의 삶을 책임지고 고민해나갈 수 있도록 한해동안 부단히 사업하는 것에 자주적 여학생운동의 생명은 달려있는 것입니다.

② 대중운동의 흐름을 창조해야 합니다.

1년을 두고 장기적으로 대중의식화, 대중조직화를 고민하고 그 속에서 대중사업을 펼쳐내는 대중운동의 흐름을 새롭게 창조해 내어야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대중의식화에 있어 일대혁신이 필요합니다.

③ 모든 일꾼들이 대중간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선거시기 항상 얘기했듯이 문창4층 골방에 틀어박혀있는 간부가 아니라, 학우들이 생활 곳곳에서 총여학생회를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일꾼들이 대표자를 중심으로 대중속에 살아 숨쉬는 간부가 되어야 합니다.

3. 학우들의 요구에 기인하여 정책에 대해 평가 및 보완합니다.

(여기서는 각 영역별로 핵심지점에 대해서만 정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총노선에서 보완합니다.)

1) 대중투쟁에 대해

첫째, 대의체계(민족효원 여학생 대표자 회의)를 중심으로 과학우들을 장악해가야 한다.

둘째,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의 목소리로 투쟁과 사업을 펼쳐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셋째, 학우들의 삶과 가깝게 생활운동을 토대로 의식화해나가야 한다.

둘째, 여학우들의 문화에 대한 요구에 맞게 다양한 문화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2) 학자 정책에 대해

첫째, 학우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해나가며 여학우들 삶에 직결되어 있는 다양한 학자정책을 세워야 한다.

둘째, 이제까지 학자에 있어서의 소극성을 벗고, 학우들의 힘을 발양해나가며 힘있게 투쟁으로 펼쳐내어야 한다.

3) 문화 정책에 대해

첫째, 여학우들의 문화에 대한 요구를 다양하게 받아안아가야 한다.

둘째, 생활문화운동 및 지속적인 대중강좌사업으로 여학우들이 주어진 관점을 가져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4. 주체단위에 대한 평가

1) 각 국별 평가 (핵심적 평가)

· 비서국 : 이전 선거보다 후보님들이 학우들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게 계획하였던 성과가 남는다. 그러나 후보님들에 대한 단련사업과 정책보좌가 매우 부족하였다.

· 정책국 : 그 어느 선거보다 여성정세, 학원정세의 요구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공약화하는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정리하지 못했고, 총화가 잘 안되었다.

· 선전국 : 통크게 선전하고자 했으며, 공약집 홈페이지 등 성공적인 선전을 한 면도 있다. 그러나 선전 주체가 마련되지 못해 선전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한계였다. 그리고 선전정책을 집단적으로 논의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나섰다.

· 정해단 :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채 정해단을 운영해 정해단 친구들이 규정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데 정해단 활동이 별 도움이 안되었다. 그러다보니 정해화된 모임도 열어내지 못하였다.

· 사무국 : 적극적, 계획적으로 활동하지 못했다.

2) 주체활동의 성과적 지점

혁신의 기풍 - 그 어느 선거시기보다 종례가 잘 성사되었던 점
새내기를 비롯한 새로운 운동인들이 발굴되었다는 점

새로운 기풍 만들어내면서 -
학우들의 목소리를 듣자 했으며 후반
70% 이상 완료

3) 주체활동의 한계적 지점

제기된 사업과 투쟁을 형식적으로 대하는 문제
대중을 하늘처럼 대하고 학우중심의 원칙을 고수하지 못했던 문제
대중속에 뿌리박지 못했던 일꾼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의 문제

전체 운동과 자주적 여학생운동에 대한 신념과 신심이 부족한 문제

사상의지적 단결을 내어오지 못한 문제

결사관철하는 기풍이 부족한 문제

Handwritten notes: "자주적 여학생 운동", "신념과 신심", "결사관철하는 기풍", "정리정돈"

4) 우리의 과제 및 실현방도

5. 12대 총여학생회의 빛나는 전망을 밝히자.

(핵심과제를 도출하자.)

1) 사상운동의 과제 및 방도

<내부적>

① 자주적 여학생운동으로 무장해야 한다.

서구의 페미니즘과는 다른 우리의 여학생운동의 내용에 대해 깊이있게 알아야 부산대 여학생운동의 발전을 내어올 수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자주적 여학일꾼답게 사업방법과 작풍에서의 일대혁신을 통한 실천의 과정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②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나아가야 한다.

이는 자주적 여학생운동과 전체 변혁운동에 대한 신념과 신심, 승리하는 변혁정세 등을 잘 알고 실천해가는 과정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세워 나가야 한다.

③ 사상운동을 중심으로 조직생활을 만들어가야 한다.

모든 운동은 주체의 사상의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만큼, 사상운동의 중요성을 깊이있게 각인하고 사상교양, 사상투쟁을 일상화, 정례화하는 것, 그 내용을 항상 혁신해나가는 것을 중심으로 조직생활을 해나갈 때 운동은 더욱 주체적 의지를 세워가는 과정으로, 학우들을 책임져가는 과정으로 될 것입니다.

<골간에 대하여>

① 자주적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아가야 한다.

<대중적 사상운동>

① 총여학생회가 9천의 자주적 대중조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나아가야 한다.

민족효원 여학생 대표자 회의를 건설하는 것으로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내고 대중적으로 사업을 펼쳐냄으로써 여학우들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본때나게 하는 곳, 해내는 총여학생회라는 인식을 내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개량적 여성운동과의 사상투쟁을 벌여내어야 한다.

마녀들의 행동이 시작되었을 때의 학우들의 반응을 보면, 총여학생회가 필요하고 건설해야 한다는 인식은 깔려있지만, 서구의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마녀들의 말에 솔깃한 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서구의 페미니즘은 실제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구조적인 면을 보지 못하고 오직 가부장제에만 전선을 긋고 있으므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인 이남 사회에 전혀 맞지 않는 이론이다. 오히려 제도권 내에서 개량적 여성운동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12대 자주적 총여학생회는 이남 사회 여성의 삶을 바꿔낼 수 있는 자주적 여학생운동에 대한 내용을 함의, 확산시킴으로써 개량적 여성운동과의 사상투쟁을 벌여내어 학우들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조직운동의 과제 및 방도

① 여학생 대표자 회의를 중심으로 총여학생회 대의체계를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② 조직운동의 틀을 제대로 갖추내어야 한다.

③ 조직운동을 총화하는 총화회의 및 교사모임을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

정례화하고

④ 새내기 사업을 본때나게 벌여야 한다.

3) 대중운동의 과제 및 방도

① 대중운동을 정형화해내어야 한다. (대중운동의 흐름 창조)

② 학우들의 요구를 항상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학우들의 처지에 기반한 투쟁부터 전체 여성투쟁에 이르기까지

4) 역할 및 체계

5) 조직운영